

문화기획 하늘개인날

강태기

최송림 / 作

김성노 / 演出

강태기 / 出演

강태기 모노드라마



89년 9월 22일 23일 24일 PM. 5시, 7시 30분 © 가톨릭센터소극장

후원 / 반야회 · 삼보통운 · 부성운송

작품해설

돈의 행방에 따라 여러 인물로 분
돈하는 1인극 「돈」은 실직자가,
 그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날마다
 공원으로 출근하는데서부터 이야기
 가 시작된다. 「예스맨」이라고 동료
 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만큼 회사
 에 충성했으나 노사분규의 와중에
 희생된 그는 호주머니를 털어 최후
 의 5백원짜리 동전 하나에 신념을
 걸고 복권을 산다. 그것이 거짓말
 처럼 당첨이되어 하루 아침에 부자
 가 되었다고 기고만장, -일약 내 집
 마련의 꿈에 젖어 희희낙락 하다가
 노상 강도에게 가스총을맞고 쓰러
 진다.

강도는 목격자들을 협박하고 유
 유히 잠적, 신사로 변해 돈가방을
 들고단골 창녀인 탐희를 찾는다. 그
 는 돈을 마구 뿌리며 그녀더러 자기
 와 결혼하여 새 생활을 찾차고 한다

그러나, 탐희는 그가 목욕하는사
 이 돈가방을 훔쳐 가난하고 병든남
 자한테 도망친다. 그녀의 남자는 돈
 에 대한 온갖 철학적인 청년이다.

청년은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
 자가 창녀가 된 사실에 절망, 극도
 의 정서불안을 나타내며 여자와 돈
 을 단호히 물리친 후 광기에 싸여
 스스로 「돈황」임을 선언하고 죽어
 간다. 어쩔 하늘을 향한 천국의 계
 단이듯 사다리를 타고 한줌 영혼의
 빛으로 사라지는 것이다.

문화기획 하늘개인날 제작·기획 No2

돈

(DON)

작 / 최 송 림
 연출 / 김 성 노
 출연 / 강 태 기
 총제작 / 정 주 현 · 이 영 진
 제작 / 이 정 허 · 김 성 태 · 김 경 수
 기획 / 구 자 현 · 권 철
 무대 감독 / 김 광 보
 조명 / 박 월 환
 음향 / 황 영 옥
 의상 / 주 은 숙
 진행 / 김 강 석
 소품 / 정 희 숙 · 백 금 산

연극을 만든 사람



연극을 만든 사람 · 강 태 기

5년, 부산과의 만남 -기쁨과 행복-

「...지구의 용서받을 모든 걸 통째로 머리에 이고 하늘나라에 가리라」고 절규하는 「돈황」의 슬픔을 통해 신과 인간과의 관계설정을 깊이 생각하게 한다. 인간이 지닐 수 밖에 없는 한계성과 비극이 가슴을 저민다. 연습을 하면서도 「인생은 연극」이라는 말의 새맛을 새삼 터득한 듯 싶다. 나는 연극을 인생같이 땀흘렸다.

이 한편의 모노드라마를 위해 개인 사무실(강태기 연극방)까지 얻어 얻어 작가와 5년이라는 세월을 부대끼며 술을 익혀 빚듯 연습하며 만들었다. 천하에 지독한 「강가와 최가」가 만났으니 무엇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다. 글썄, 꼭 믿었을까? 우린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.

주변에서도 도대체 어떤 「물건」을 내놓겠다고 그토록 땀을 들이느냐며 감탄인지 모를 소리도 많이 들렸다. 작가를 너무 괴롭힌 것 같아 미안하지만 피차 그만큼 보람도 크다. 거기에다 날카로운 젊은 연출가 김성노씨의 가세로, 그의 감칠맛나는 해석은 연극의 빛을 한층 더해주리라 믿는다.

「돈」이 지방문화시대를 예고하는 그 어떤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. 정치·경제·문화…… 모든 분야가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소박한 문화운동의 일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, 기대섞인 생각도 해본다. 아울러, 평소 저를 아끼는 부산팬들에게 이 무대를 통하여 만남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도 적지 않다.

이 진통에 겨운 창작극의 무대를 마련해준 「하늘 개인날」의 정허스님과 열심히 뛰어준 극단식구들에게 감사한다.

스탯

연극을 만든 사람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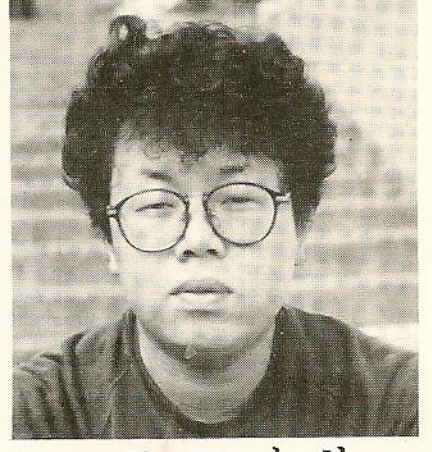
제작: 이 정 허



제작: 김 성 태



제작: 김 경 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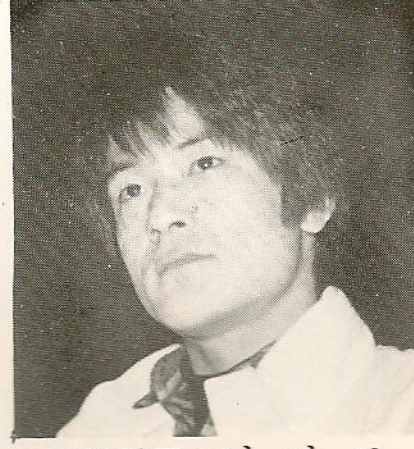
기획: 구 자 현



기획: 권 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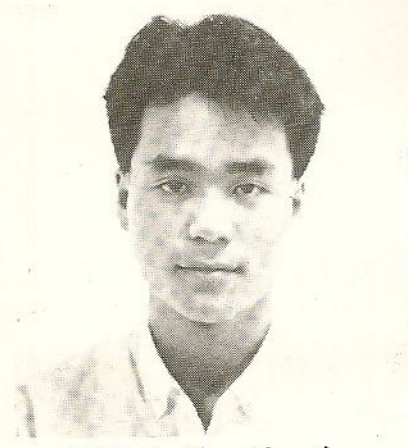
조연출: 정 명 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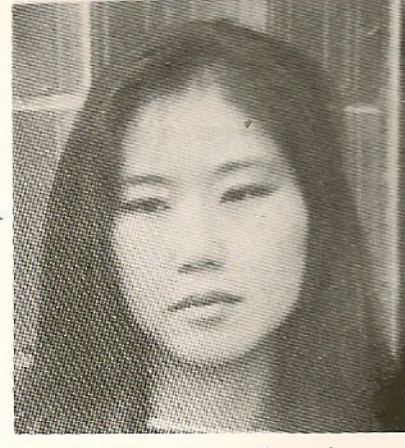
무대감독: 김 광 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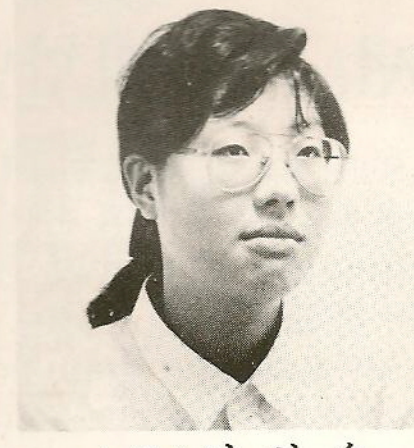
조명: 박 월 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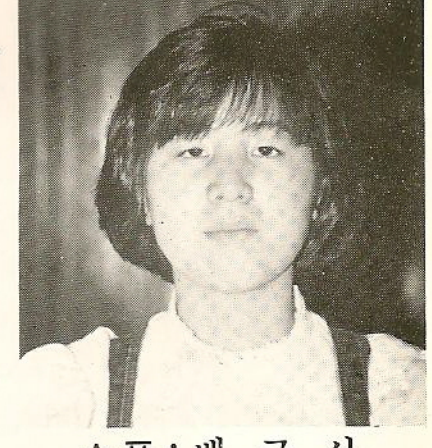
음향: 황 영 욱



진행: 주 은 숙



소품: 정 희 숙



소품: 백 금 산

- 음악: 전 영 수(스타라인 대표)
- 연주: 백 승 태(가수)
- 분장: 정 완 식(KBS)
- 의상: 허 우 석(디자이너)
- 미술: 박 동 우(디자이너)

- 효과: 최 광 호(KBS)
- 사진: 스타라인 스튜디오
- 비디오 촬영: 이 승 호(연극배우)
- 조연출: 정 명 철(극단 실험극장)